

협회소식 / 91
건축계소식 / 94
현상설계 / 100
해외잡지동향 / 108
전시리뷰 / 115
회원현황 / 12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4

협회소식 KIRA news

한국건축문화대상,
우리협회 탈퇴

정부, 언론사의 주도는 부당 문제제기
올 행사에 대다수 회원 불참

우리협회가 올 해부터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행주체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이 행사의 시행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는 지난 9월 28일 있었던 본협회 제1회 임원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의 결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우리협회가 올해부터 이 상의 시행주체에서 탈퇴하게 된 배경 등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우리협회 단독으로 시행해 오던 「한국건축전」을 92년부터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개최하던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우리협회가 「한국건축전」을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94년부터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 운영해 왔으나 그간의 행사 시행과정에서 비전문가의 심사참여, 언론사 상업논리의 개입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순수건축문화제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주체에서 자진 탈퇴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 예술분야의 각종 공모전 및 시상제도가 국전에서 민전으로 바뀌고 있는데, 건축관련 시상제도에 관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으며, 언론사가 주도하는 이 상에만 유독 정부표창이 주어지는 것은 다른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건축시상 제도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는 이 상의 주도자가 아닌 후원자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는 대부분 회원들이 불참하여 협회의 의지에 동참한 결과, 올 해 대상작(대통령 표창)은 수상작을 선정하지 못한 채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행사를 강행했다. 이번 일에 대해 건축계 관계자들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이 건축계의 진정한 시상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는 시행주체로서, 정부는 이를 격려하는 후원자로서, 언론은 건축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전달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우리협회에서는 이러한 건축상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그동안 심사를 맡았던 심사관계자와 수상자 등 건축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지 12쪽 참조)

99년도 제10회 이사회

회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등 처리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9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21일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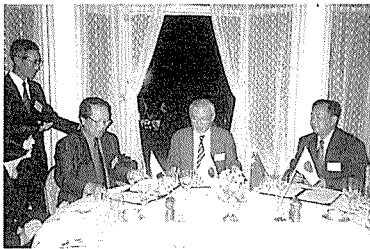
〈부의안건〉

- 제1호의안: 회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회관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3호의안: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2000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에는 이건호이사, 위원중 임원 3인은 변종환, 류성희, 조태중이사, 회원 3인에는 정효환, 신문섭, 이영기회원을 각각 선임하기로 하고 건축사회회장 3인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이의구회장,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참석

자격상호인정 등 공동관심사 협의



이의구회장을 비롯한 우리측 참관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 참석해 WTO시장개방에 따른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각국의 교육제도와 건축사자격 취득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협의했다.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동북아시아 3개국 건축사단체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방문, 건축사등록에 관한 제도, 정책, 법규 등의 자료교환, 학술·문화사업 협력, 기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97년 1월 제1차 북경회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회를 결성키로 하고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탄생했다. 지난해 제2차 우리나라 제주회의에 이어 열린 올해 회의에서 일본의 경우는 APEC의 Engineering 자격조건을 기

준으로 논의할 것을 제외한 데 반면, 우리측은 APEC의 기준이 아닌 UIA의 기준을 갖고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결국 3국의 민간단체가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 문제가 남아있고,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실무교육에 대한 개혁이 검토중이므로 당분간 현실적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또한 현재 활동중인 뛰어난 건축사들에 대해서는 3국이 그 실력의 동등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본측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차기 회의는 내년 하반기에 중국의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이의구회장외에 우남옹부회장, 이관영이사, 이정근·이필훈국제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내년 중국 상하이 대회에 북한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구 회장, PPC회의 참석

10월 8일, 9일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건축사연맹(UIA) 산하 전문운역업위원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 Meeting) 제8차 회의가 지난 10월 8, 9일 이틀동안 체코 프라하 Martinicky Palace(프라하성내)에서 2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의구 우리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근창, 이인호 국제위원과 건축가협

회에서 조영중씨가 참석했다. 이번 8차 회의는 지난 1998년 12월 와싱턴 회의때 보완, 수정되고, 올해 2월 일본 나고야 이사회를 거쳐 제10차 UIA총회에서 채택된 UIA 건축실무에 관한 국제표준 권고 협정(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을 근거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각 분과별 주제와 전문실무위원회는 작년 와싱턴 회의때 이미 구성되어 각 전문실무위원회에서는 주제별 내용을 연구, 조사하여 초안이 제출된 가운데 위원장인 미국 James Scheeler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토의 안건의 검토, 북경 총회에서 채택된 권고 협정내용의 세부지침 사항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건축사회, 후쿠오카 건축작품 교류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광주건축사회에서는 JIA 후쿠오카회와의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광주·후쿠오카 건축작품 교류전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에서 광주건축사회 회원,

JIA후쿠오카 회원, 광주전남지역 학생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총 85점이 전시됐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무등파크호텔에서는 광주·후쿠오카 친선의 밤이 개최되어 이의구 우리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는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상호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건축사회, 회원전 및 학생작품전

순천 문화예술회관과
MBC 목포문화방송국에서



전남건축사회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건축사 회원전과 학생작품전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MBC목포문화방송국에서 각각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남건축사 회원작품 35점과 학생 우수졸업작품 8점 등 총 43점이 전시됐다.

전북건축사회, 회원전 및 학생작품전

전북건축사회관 전시실에서

전북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북건축사회관 2층 전시실에서 전북건축사 회원작품전 및 99학생건축설계 작품과 도내대학 재학생 우수졸업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도민들이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개최됐으며, 전북건축사회원 작품 55점과 도시중산층 주택 재개발 계획을 주제로 한 99학생건축설계 응모작 66점, 그리고 도내대학재학생 우수졸업작품 38점 등 총 159점이 전시되어 조형창작 예술로써의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제고와 후진양성을 통한 전북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충북건축사회, 고건축 답사

제4기 시민건축대학 강좌 중 실시



충북건축사회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제4기 시민건축대학 강좌중 지난 10월 28일(목) 고건축 답사를 했다. 시민과 회원 103명이 참여한 이번 답사는 충남지역 윤증고택, 신원사 중악단, 감사 등을 돌아보며 전문강사의 생생한 현장설명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회원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

금번 국세청의 전문직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가 좀 더 저렴한 가격과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여 카드초회기는 소비자의 1/4수준으로 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은 적용률 4~5%보다 낮은 매출금액의 2.5%~3%로 책정기로 하는 등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본협회 또는 각 시도건축사회의 안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99. 하반기(2차) 가맹점 확대 조치 주요내용】

1. 업 종

서비스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116개업종 추가 (총 209개 업종)

※ 서비스업: 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포함.

2. 지 역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 읍·면지역중 관광지역 등과 같이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포함.

3. 사업규모

개인사업자: 98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전문직용역업종)

법인사업자: 지정업종 전체